

감염병에 관해 영상보도 하려고 한다.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 ☞ 전염 방지와 전염병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해당 정보가 영상 속에 포함되어야 한다. ‘감염병예방법’의 수칙을 숙지해야 한다.
- ☞ 영상이 시청자의 불안감을 부추기거나 조장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해야 한다.
- ☞ 환자의 개인정보 혹은 사생활을 적극적으로 보호한다.
- ☞ 무엇보다, 기자 본인의 안전을 충분히 확보한 후 취재에 임한다.

▶ <관훈저널> 2020년 여름호에 게재된 “사진기자 대구에 가다” 기사에 대구의 코로나 현장을 취재하던 로이터통신 일본 도쿄지사 A기자에 관한 내용이 실려 있다. 로이터 글로벌 에디터인 안전책임자가 A기자와 취재 당일 나눈 대화에서 안전 책임자가 취재 기자에게 질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오늘 취재 현장은 위험하지 않았는가? 아침 저녁 체온은 체크했는가?
- 오늘 복장은 무엇을 입었는가? 취재가 끝나고 복장을 소독 했는가?
- (내일 감압병동 의료진 인터뷰가 예정돼 있고 병동 내부 취재를 허가받았다) 병동 내부 는 감염 위험이 높으니 취재하지 마라. 인터뷰할 때 반드시 2M 이상 거리를 유지하라.
- (서울로 복귀하면 자가격리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레지던스를 2주간 예약하고 먹을 것까지 준비해두기로 했다. 가급적 외출하지 마라.

▶ 코로나19가 확산되던 2020년 초기에 감염병 취재현장의 혼란이 있었다. 이에 2020년 2월 21일 한국영상기자협회와 한국사진기자협회는 긴급 공지문을 발송했다. 주요 내용은 △ 코로나19의 전방위적 확산으로 현장 취재를 하고 있는 협회 회원들의 건강이 우려되고 △ 과도한 취재경쟁으로 취재진이 코로나19의 전파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으며 △ 병원과 검진소 취재시 필히 마스크와 고글 등 보호장비를 착용한 후 최대한 원거리에서 취재해줄 것 등이다.

▶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는 2020년 4월 28일 <감염병 보도준칙>을 제정, 발표했다.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사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으므로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임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권고 사항 중 특히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한국기자협회는 2020년 2월 21일 <코로나19 보도준칙>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코로나19를 취재 및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자 스스로의 안전임을 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해 회사 측과 상의해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받아

야 한다. △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병명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이다. 보도 및 방송에서는 공식 병명을 사용해야 한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지침을 통해 지리적 위치, 사람 이름, 동물·식품 종류, 문화, 주민·국민, 산업, 직업군 등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지역명을 넣은 ‘○○페렴’ 등의 사용은 국가·종교·민족 등 특정 집단을 향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 혐오 및 인종 차별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과도한 공포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 유튜브 등을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조작 정보의 재인용 보도 및 방송 또는 인권 침해 및 사회적 혐오·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적 보도 및 방송을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감염 의심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감염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회사는 감염병 확진자에 대한 취재지시를 내렸다. 어떻게 취재해야 하는가?

- ☞ 전염성이 강한 법정 전염병 취재의 경우, 발생 현장을 취재하기 전에 반드시 방송사와 관계 기관에 안전성 유무와 보호 장비 제공 등을 요구하고 이러한 준비가 갖춰진 후에 취재에 임해야 한다.
- ☞ 데스크는 코로나19와 같이 무증상 감염이 발생하는 경우 취재기자를 투입하기 전 사전에 안전유무 확인, 안전장비의 확보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 불티와 월킨스는 데스크가 사고 당사자나 경찰, 소방대원이 겪는 것과 비슷한 현장 취재기자의 스트레스를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 ▶ 취재에 임하더라도 취재 전과 취재 중 수시로, 또 취재 후에 반드시 필요한 진료를 받아야 한다. 관행이나 시간, 비용을 이유로 필요한 진료를 미뤄서는 안 된다. 언론사는 재난보도에 임하는 소속 종사자에 대한 진료 지시와 이행 점검의 의무를 부담한다.
- ▶ 일반적으로 한국의 언론은 재난보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취재 언론인들에게 치명적인 감염병과 같은 재난을 취재 보도할 때 언론사, 데스크, 일반인 모두 언론인의 안전과 생명 보호에 민감하지 못하다. 현장을 취재해야 하는 언론인의 각성과 대응이 필요하다. 아직까지 한국 언론의 데스크는 현장 취재 언론인의 무모하고 무지한 재난 취재보도를 언론인의 용기와 자세라고 그릇되게 믿는 경향이 있다.
- ▶ 데스크(회사)의 일방적 취재지시를 현장의 기자가 불복할 수 있는가, 개인의 판단에 따라 회사의 명령을 무시하고 현장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그 근거를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 전적으로 현장에 있는 기자의 판단에 따라야 하는 것인가 등과 같은 현실적 문제가 제기된다. 이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 각 언론사는 ‘재해재난 취재보도 매뉴얼’에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 ▶ NHK 일본방송협회 <방송가이드라인>은 감염병의 특성이 밝혀지지 않은 시점에서 취재를 할 경우 증상이 있는 사람을 직접 대면하여 취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실행하지 말라고 요구한다. 전화 등의 취재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 병원의 시설 관리자나 행정 당국의 안전상의 요청이나 지시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에 따라야 한다고 말한다.